

글로벌 증시, 고금리 폭풍 속 극단적 차별화 장세 진입

연준의 3년 만의 기준금리 인상(4.00%)과 유가 100달러 돌파가 겹친 거시적 충격 속에서, 글로벌 증시는 AI 펀더멘털과 안전자산 수요로 양분되며 극단적인 차별화를 연출하고 있습니다.

KOSPI

6,715.41

↘ -0.04%

기관 방어 속 약보합

NASDAQ

25,978.42

↗ +0.24%

기술주 중심 반등

US 10Y Yield

5.00%

↗ +5bp

고금리 장기화 우려

WTI Crud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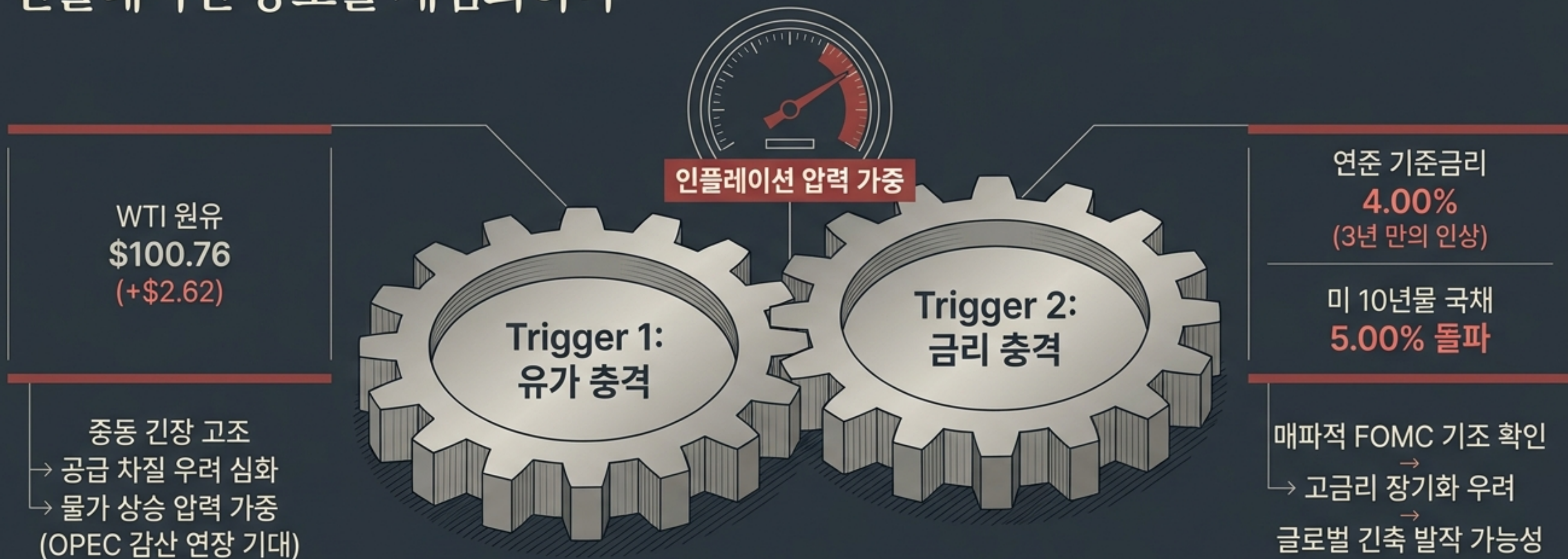
\$100.76

↗ +\$2.62

인플레 재점화 압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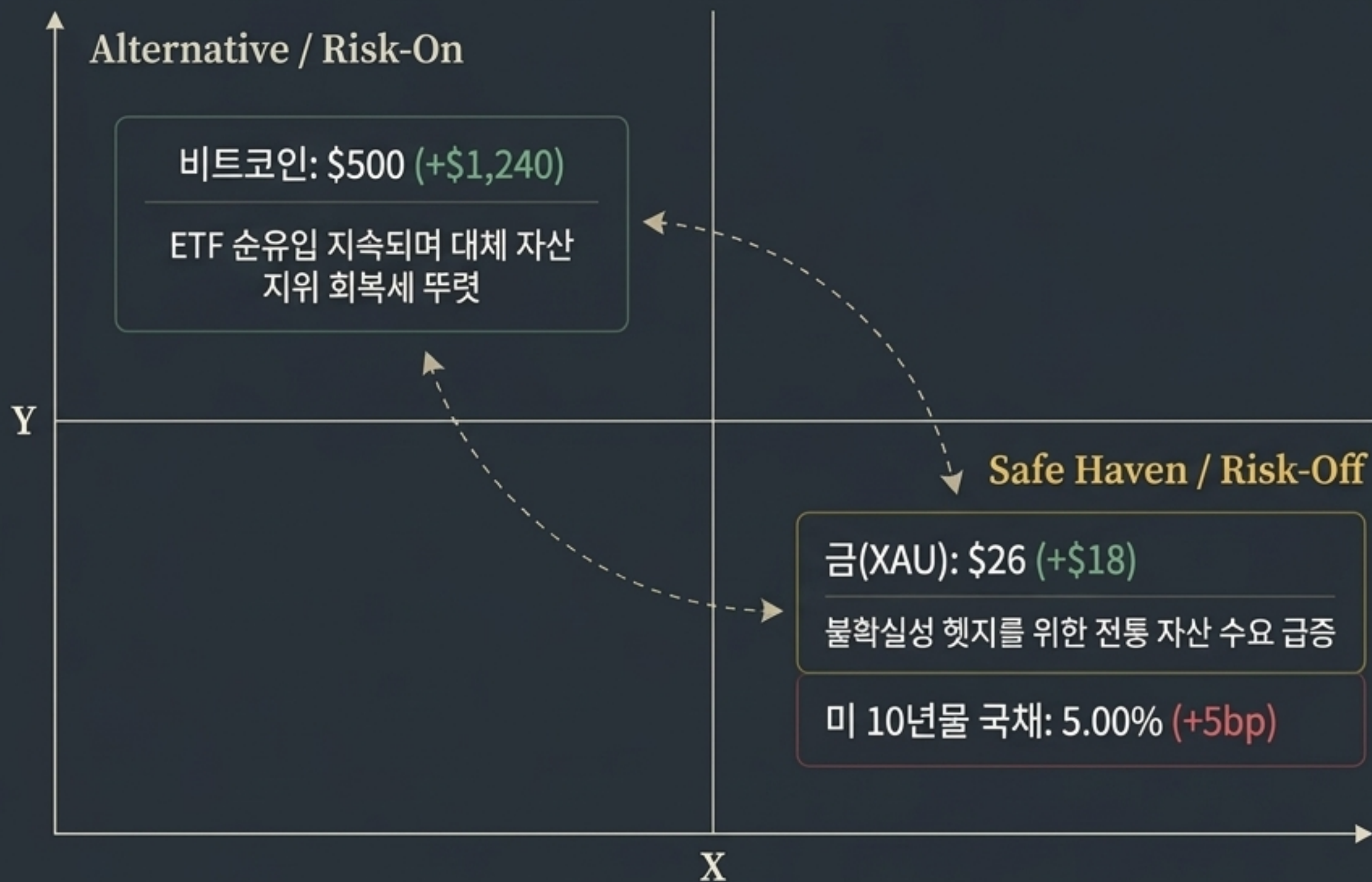
2026.09.18 기준 시황 브리핑

금리와 유가의 맞물린 톱니바퀴가 인플레이션 공포를 재점화하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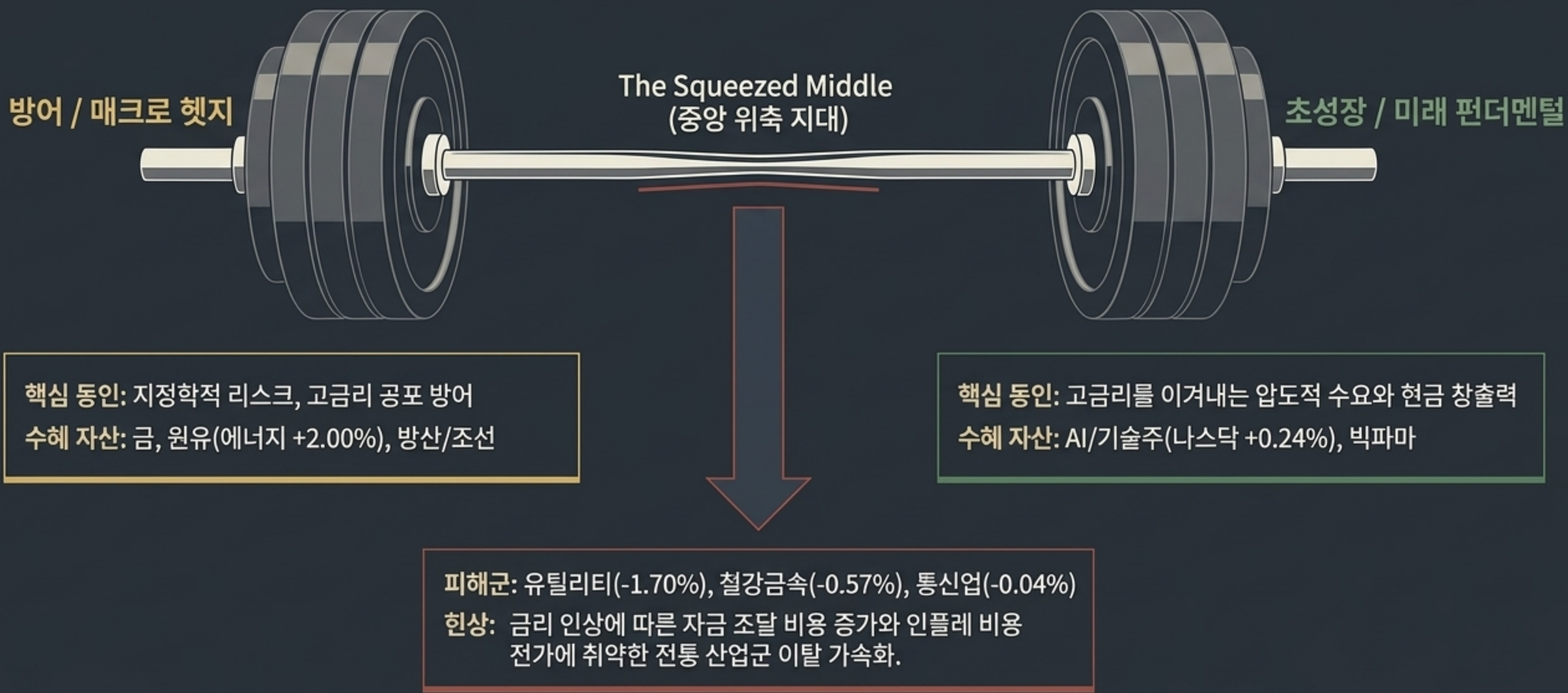
인사이트: 물가(유가)와 금리의 동반 랠리는 시장의 최우선 경계 대상으로 부상했으며, 과거 6개월간 묶였던 국내 석유가격격에도 시차를 두고 타격을 줄 전망입니다.

불확실성 회피 심리가 자본을 전통적 안전자산과 대체자산으로 밀어내다



FX Dashboard
달러인덱스: 0.5 (-0.32)
EUR/USD: 1.1790 (+0.0031) ECB 금리 경로 재평가로 유로 강세, 달러 독주 일시 제동
원/달러 환율: ₩1,381.38 (-5.30원) 장중 13.6원 상승하며 시장 부담 가중

투자자들은 중간 지대를 버리고 확실한 양극단으로 대피 중이다



미국 증시는 기술주 중심의 방어와 월가의 10% 조정 경고가 교차하고 있다

Index Divergence

NASDAQ: 25,978.42 (+0.24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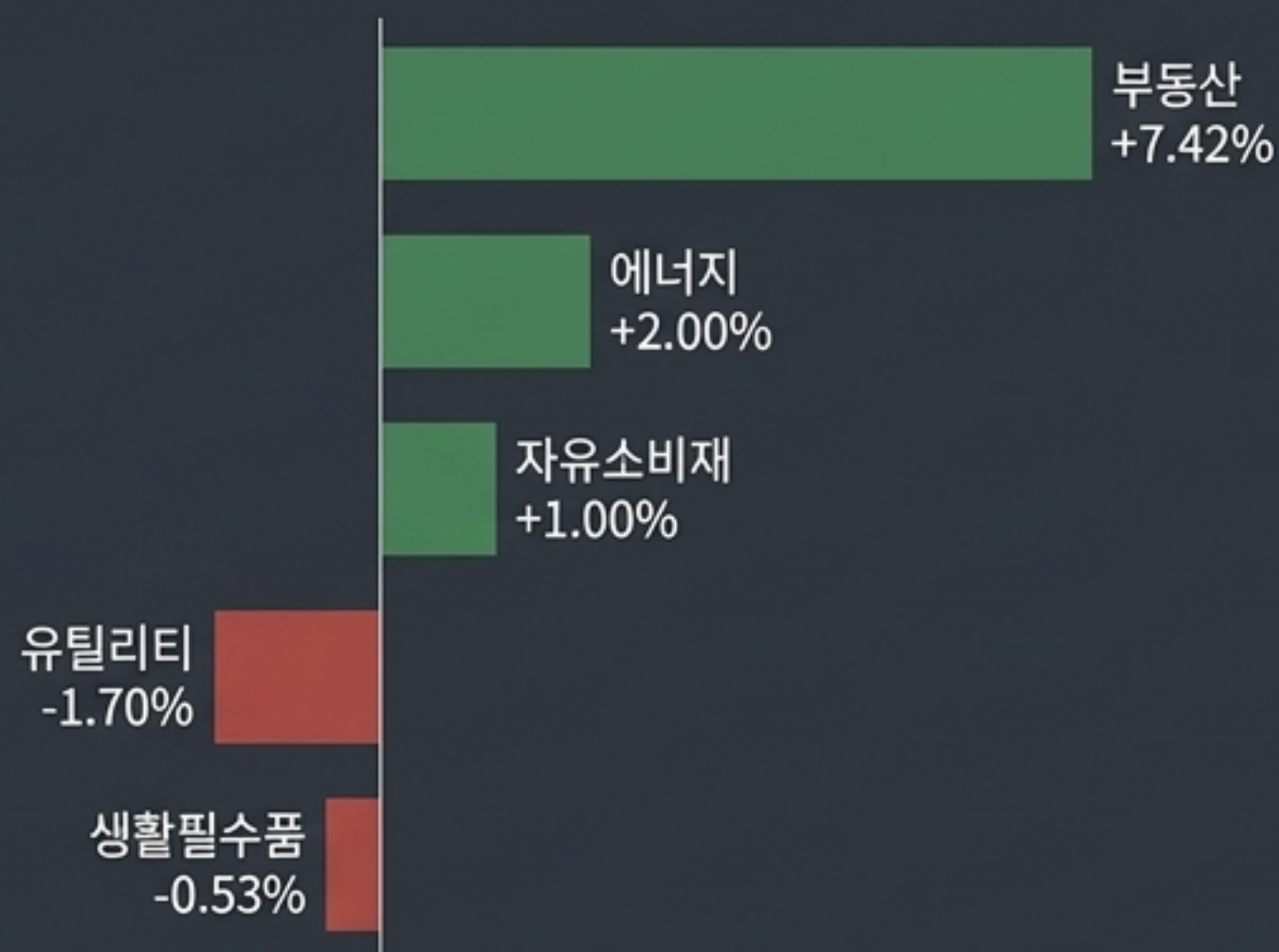
금리보다 유가에 반응하며 AI 수요 기반 급반등

S&P 500: 7,551.81 (-0.45%) / DOW: 52,115.40 (보합)



기술주 비중이 낮은 다우존스 상대적 부진 (DIA·DDM 직격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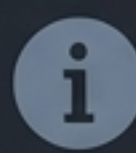
Sector Tug-of-War



Market Radar



[경고] 월가, 연준 추가 금리 인상 시
S&P 500 최대 10% 조정 가능성 경고



[변화] 미국 증시, 12월부터 평일 23시간 거래
확대 논의로 유동성 환경 변화 예고

미국의 긴축 충격은 글로벌 증시에서 지역별 호재로 상쇄되고 있다

국가 / 지수	현재가 (등락률)	핵심 동인	시장 성격
중화권 (항셍/상하이)	항셍 22,944.00 (+1.59%)	본토 증시 정상화 및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	글로벌 최고 상승
유럽 (DAX/FTSE 100)	DAX 24,998.00 (+0.80%)	방산주 강세 및 우크라 평화협상 기대감	지정학적 헷지
일본 (닛케이 225)	56,734.00 (+0.46%)	엔화 약세 지속	수출주 강세 모멘텀
호주 (ASX 200)	8,555.00 (+0.52%)	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	자원주 중심 강세

Strategic Takeaway: 글로벌 증시 강세가 꺾일 것이라는 세계 1위 펀드의 경고 속에서도, 아시아와 유럽 증시는 각자의 내부 호재를 방패 삼아 미 10년물 국채 5% 돌파 충격을 성공적으로 흡수하고 있습니다.

코스피는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 폭격과 기관의 방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

Downward Pressure

외국인 7거래일 연속 순매도
(총 2.3조 원 / 217만 주 규모 이탈)

매크로 압박: 미 매파적 FOMC 및
장중 원달러 환율 13.6원 급등

KOSPI
6,715.41
(-0.04%)

Upward Defense

기관의 수성: 19.7만 주 순매수
(개인 3.9만 주 매도)

정부 스탠스: 글로벌 연쇄 긴축
전망에도 국내 시장 영향 제한적 평가

결과: 강력한 매도 압력을 기관이 받아내며 약보합 선방.
외국인 매도세의 진정 여부가 단기 바닥 확인의 유일한 열쇠입니다.

국내 증시는 지수 방어용 대형주와 모멘텀 중심의 테마주로 완벽히 분리되었다

Market Decoupling & Sector Momentum

A

KOSPI

6,715.41 (-0.04%)

대형주 중심 방어

B

KOSDAQ

822.18 (+0.76%)

비츠로테크 등 6개 종목 상한가 랠리

Sector Winners & Losers

수혜 (강세):

은행(+3.58%)

서비스업(+2.41%)

기계(+1.97%)

소외 (약세):

운수장비(-2.31%)

철강금속(-0.57%)

종이목재(-0.42%)

시가총액 상위 방어선

삼성전자

256,000원 (+0.99%) | 1,496조 원

SK하이닉스

1,766,000원 (+0.40%) | 1,290조 원

현대차

(+0.69%)

기아

(+0.58%)

분석: 반도체 투톱과 자동차 등 압도적 시총 상위 종목들이 버티며 코스피의 추가 하락을 완벽히 억제 중.

유럽의 핵심 물가 지표가 단기 글로벌 긴축 강도를 결정할 리트머스 시험지다

Volatility Countdown

통과된 지표

미 FOMC 기준금리 4.00% 결정 및
매파적 점도표 발표 완료

CRITICAL TRIGGER (오늘 18:00)

유로존 Core CPI (예상 2.4%)
유로존 CPI (예상 3.3%)

미국의 긴축 쇼크에 이어 유럽까지 물가
상승세가 꺾이지 않는다면, '고금리
장기화'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며
글로벌 증시 2차 발작 가능성 존재.

주간 남은 일정

목요일: 미 코스트코(COST) 실적 발표
(소비 침체 여부 확인)

목요일: 글로벌 S&P / HCOB PMI
지표 발표

매크로 폭풍 속에서는 펀더멘털과 헷지라는 양극단 피난처에 집중해야 한다

Positioning (포지션 최적화)

- ✓ 바벨 전략의 철저한 유지.
- ✓ 미래 성장 펀더멘털이 확실한 AI/기술주와 매크로 리스크를 헷지하는 금·방산 테마 비중 확대.
- ✓ 금리 압박에 취약한 소비재 및 유틸리티 비중 축소.

Trigger Watch (방향성 베팅 자제)

- ✓ 오늘 18시 유로존 CPI 발표를 통해 글로벌 인플레이 강도를 재확인하기 전까지 관망.
- ✓ 공격적인 레버리지 사용이나 지수 방향성 베팅을 철저히 유보할 것.

Local Focus (국내 전술 대응)

- ✓ 대형주는 2.3조 원을 팔아치운 외국인 수급 이탈 진정 여부를 바닥의 시그널로 활용.
- ✓ 단기 수익은 코스닥 상한가 랠리를 주도하는 개별 모멘텀/테마 장세에서 트레이딩 기회 모색.

Final Verdict: 시장 전체를 덮친 금리와 유가의 파도를 막을 수는 없으나, 완벽히 분리된 양극단의 승자(AI & 안전자산)에 올라탄다면 이 폭풍은 오히려 기회가 될 것입니다.